

언약 (사무엘상 12:16-25)

우리는 언약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언약 속에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담을 갖을수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나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가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은 근본 언약이다. 저주와 재앙가운데서 해방시키는 답이 언약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 안에서 건져내주셨다. 그리고 너도 가서 건져내라, 이것이 전도와 선교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건짐을 받았는지가 희미하면 현장에서 말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 복음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복음을 계속 들을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왜 필요하면 우리에게 근본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복음이 전세계에 전달되어야 하고,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받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와 나라와 미래를 살릴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기신 것이다. 다음시대는 우리 후대들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이 후대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바르게 전달했을 때 우리의 렘넌트들이 미래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이다. 지난 주에 어떤 렘넌트에 다락방을 하면서 30년 뒤의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었다. 지금부터 3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응답받는 모습만 그렸다. 그런데 렘넌트는 배경을 우리 교회를 그렸다. 거기서 여유있게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이다. 자기는 의사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시대를 보고, 언약의 흐름을 보고 미래를 꿈꾸고 있는 렘넌트인 것이다.

1.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으로 항상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자기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잘 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같지만 못 생긴 사람은 하나님 형상 아닌 것 같을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도 같이 주신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사용법을 창세기 2장 17절로 주신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안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에 속아서 먹고 말았다. 그 이후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버려서 사단이 주는 저주를 그대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 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빠져 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셨다. 그것이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2:17절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못 지켰다. 저주 받았다. 그런데 두 번째 창세기 3:15절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은혜 속에 있는 언약인 것이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으러 오시는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셨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 영원한 것이다. 그 언약은 계속 성취된다. 변함없이 성취된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언약이다.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것만 말하려고 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만 믿

고 인정하면 구원받고 승리하고 정복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 체질 뿌리 되게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고 장막, 회막을 만들게 하고 언약을 보여주신 것이다. 많은 절기를 이야기 하신다. 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가? 헤깔릴것이 없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한분을 설명하시려고 일곱 절기를 이야기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씀하시려고 성막을 말씀하신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서 오신 이유가 모든 성막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한 민족을 택하셨다. 그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다. 갈데아 우르에서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가문속에서 전세계를 살리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어디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틀림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있던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이다. 창세기에는 네가지의 사건이 있다. 창조사건, 타락사건, 방주사건,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다가 네명의 인물로 전환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다.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을 이해하면 이 언약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전달되어서 세계 복음화로 나타난 것이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 개인화 될 때 가문과 개인과 미래가 변화되는 역사를 언제나 주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인데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다.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신 것이다.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다. 후대들에게 길이 남을 기념비적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이시간 우리가 받는 응답임을 믿는다.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전달되었다. 저와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었을 때에 모리아 산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삭이 재물이 되게 되었다. 평상시 아버지의 제사를 잘 알던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갔다. 그런데 이삭이 물어본다.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셨다고 말하였다. 올라가자마자 설명도 없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때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와 아들을 위해 준비한 숫양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이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이다. 죽어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되고 평생 고통받다가 처참하게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저주에서 끝내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삭도 숫양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전도자가 된 것이다. 이삭은 한해에 백년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샘의 근원의 응답을 받았다. 그 지역은 얼마나 물이 귀한가? 그런데 샘의 근원을 찾았다. 르호봇 경제의 응답을 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삭과 같은 복을 받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란다. 이삭은 그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했다. 야곱에게 언약이 전달되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언약을 누리는게 아니라 자꾸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줬는데, 야곱은 뭔가 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한다. 그게 잘하는줄 알았지만 그러나 아니다. 다른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기 원하신다. 오늘 이 언약이 회복되어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바란다. 야곱은 혹독한 훈련 속에 응답을 받게 되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12명의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 그 자

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겠는가? 안하겠는가? 평생 자기 힘으로 살려왔는데 안되었다. 왜냐면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쉽고 좋은데, 이제야 알았다 하고 언약을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열두명의 아들 중에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한명 요셉이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은 이해를 못한 것이다. 왕따가 되었다.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여정이었던 것이다.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누렸다. 우리도 이 언약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누리기 바란다. 저도 고생 좀 해봤는데, 그때마다 복음으로 이길 힘을 주셨다. 그리고 언약이면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언약이면 다라는 것이 강단에서 들으니까 이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언약이 맞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기 바란다. 어떤 목사님과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 예수님이 보더니 집사님을 보더니 아는 척은 하지만 뜨끈한 반응은 아니었다.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칭찬하며 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 집사가 서운해서 속으로 이야기했다. 목사님들은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데 여기까지와서도 그러면 되냐고 속으로 이야기 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집사에게 말하기를 오랜만에 목사가 와서 기뻐서 그런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과 한 평신도가 천국에 갔다.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평생을 주의 일을 했던 예수님이 칭찬해주실거야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다. 그런데 웬일로 예수님이 데면데면하게 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서운했다. 그런데 같이 온 집사는 택시운전사였다. 그는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이었다. 목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정도면 저 사람은 더 혼날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집사를 환영하면서 안아주시는 것이었다. 그때 목사가 속으로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야, 너는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자게 했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난폭운전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게 했는지 몰라. 내가 누구를 칭찬해야 되겠니.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는 전도자가 되어서 기도와 언약속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봤다. 공통적으로 보면 언약을 잡으려고 애쓰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다. 더 구체적인 절대주권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잡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은 것이다. 떨어져 나갈려고 해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꼭 기억하기 바란다. 내가 잡거나 내가 놓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이 절대 붙잡고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렸다는 것이다.

2.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성경을 언약중심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도 언약의 축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세상은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언약이다. 이 언약은 저주, 재앙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살리고 쓰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중요한 여인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된 것이다. 그런데 이 요셉 때문에 VIP가 되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이다. 피제사를 늘 드려야 하는데, 430년이나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 피제사가 개인화가 되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된 것이다. 이 피제사가 개인화가 되지 못하고 놓쳐 버리니까 VIP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다. 언약이 개인화가 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그런데 사실 일주일이나 길면 한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

나안을 무려 40년간 광야생활을 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탐시키는 얼마 안되는 시간 동안 언약을 또 놓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킨 것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인도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복했다. 미리 제자를 찾아냈다.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한 것이다. 언약을 놓치면 구경꾼이 된다. 언약을 놓치면 멸망하고 실패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된다. 놀라운 것은 그 곳에 있다가 언약을 회복하면 거기서 건져내주신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깊은 사랑인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언약이 희미해진 것이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왔다.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같이 했다. 그런데 사사가 있을 때에는 그 나라가 평안했다. 사사가 없을 때에는 또 우상숭배하고 적군에게 침략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속는 것인 것이다. 언약이 없으면 또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 때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인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힌바 되었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 우리는 보좌의 망대로 부르셨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대 자체로 부르신 것이다.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신 것이다.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보좌의 망대이다. 이 망대를 가진 우리가 파수망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파수망대가 보좌의 파수망대이다.

3.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나온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한다. 하나님이 앞에서 하신 일을 봐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다. 이것이 왜 죄냐면 이미 처음부터 우리의 왕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왕이다. 저주와 사단을 깨실 왕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필요 없고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천둥 번개가 치니까 그제서야 안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그제서야 기도하면서 회개한 것이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왕들과 싸우기도 하였다. 힘이 있고 대단한 왕들도 많이 만났다. 그런데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릎꿇게 하고 승리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들을 멋있게 보고 왕을 달라고 한 것이다. 그들은 결국 이 울무에 걸리게 된 것이다. 오늘 마지막 25절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한다는 것이다. 왕이 잘하면 복을 받는데 왕이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세상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왕이 되어서는 안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나, 세상 것이 왕이 되어서는 안된다. 돈, 성공, 명예가 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변함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하기 바란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 나누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음을 결론내리면 된다. 사무엘이 말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경신을 차려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다. 집중한다는 것은 작은 시간이지만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 정복하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언약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